

[가상화폐분쟁] ERC20 관련 가상화폐 투자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 거래소 운영

자 기소 대전지검 보도자료



ERC는 Ethereum Request for Comments의 약자로 Ethereum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표준이라고 합니다. ERC 20은 2015. 11. 19. 이더리움 개발자 Fabian Vogelsteller가 제안한 내용이고, 그 순번은 20번째입니다. 인터넷 블로그 [ERC20 토큰을 만들어서 배포까지](#)에서는 설명하듯 쉽게 만들어 배포할 있습니다. 검찰보도자료에서 ERC20 토큰은 1만원에 약 4분이면 수백억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대전지검에서 공개한 가상화폐 사기사건 보도자료는, ERC20 토큰을 이용한 쇼핑물과 거래소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금으로부터 수익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의 폰지(ponzi) 사기사건을 적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불법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하고, 불법 다단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검찰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I

범행 수법

① A코인, B코인은 사실상 무가치하고, C거래소, D쇼핑몰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어 외관만 만든 것임

- **A코인**은 블록체인의 블록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폐기코인이고, **B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사업 등 토큰 활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실상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
- **C거래소**는 국내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일부 코인이 상장되어 있을 뿐 사실상 거래가 없고, **D쇼핑몰**에는 코인 거래 기능도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고, 실제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② 후순위 소액 투자자들의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여 기망

-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만든 거래소에 상장하면 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여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기망
- 그러나 후순위 투자자가 없자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도 없어 피해자들은 전산상의 숫자만 보유하는 피해를 입음
(별지 범행 구조도 참조)

III

참고사항 및 향후 계획

- 가상화폐가 ERC20 토큰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판매자들이 막연한 사업 방향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상화폐 구입 시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업 내용,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ERC20토큰은 약 4분, 1만원이면 수백 억 개라도 쉽게 만들 수 있음
- 대전지검은 사업 초기에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고, 앞으로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한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끝.

첨부: 검찰보도자료

기술법무, 조사자문,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합의, 공탁 등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